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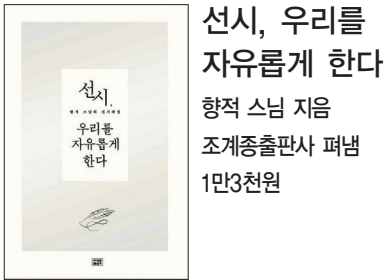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6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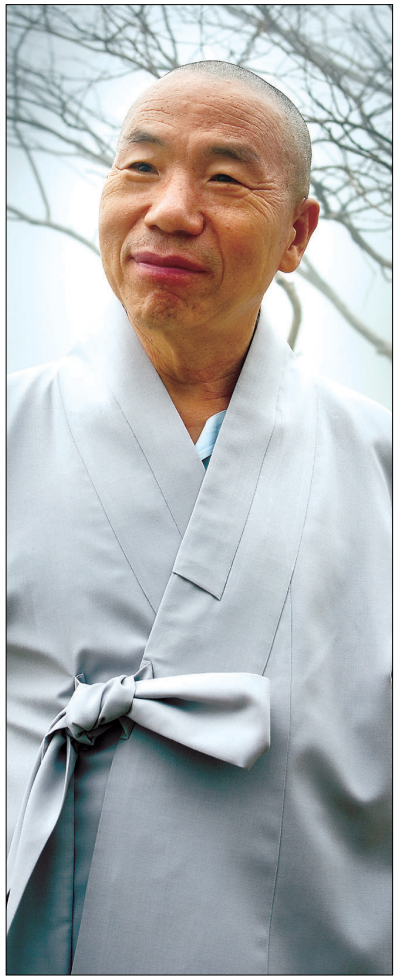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목경찬	불광출판사
2	삶은 환타지다	월호	민족사	7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노 순모	담앤북스
3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8	일체경계 본래일심	정목	비움과소통
4	비움수업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9	내게와 부딪히는 배도 사형에게가게 나는 행법문	편집부	불광출판사
5	담마빠다(빠알리어 직역 법구경) 일아	일아	불광출판사	10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깨달음의 순간들이 빚어낸 언어, 선시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3천원



태고, 나옹, 성철, 일타 등
저자가 범피 때 소개했던
선시 126편과 해설 묶어

기 때문에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저자는 “짧은 세대일수록 선시 읽기를 기피하는 것 또한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은 한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자만의 맛이 있다.”고 말한다.

책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에는 선시를 어려워하는 젊은이들도 큰 어려움 없이 흥미를 가지고 선시를 접했으면 하는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선시는 선사(禪師)의 정신적 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향적 스님은 선사들의 깨달음의 경계가 담긴 선시들을 암송하면서 잠시나마 풍진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유사 이래로 많은 선사들은 깨달음을 읊은 오도송, 세상을 떠나며 남기는 열반송, 법을 전하는 전법계 등의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남겼다. ‘선시’의 특징은 모든 형식과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다.

때문에 조화와 논리, 목적 등의 조작과 자유분별이 허락되지 않는다. 선사들은 선시를 통해서 정신적인 자유를 지향했던 것이다.

저자는 이 선시해설집에서 독자와 선시를 통한 정신적 교감을 지향하고 있으며, 선시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선시를 통해 현실 생활의 무료함이나 삭막함을 잠시나마 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가을 깊어 지팡이 짚고 산에 오르니 / 바윗가에 단풍은 불타는 것 같네 / 조사서래의 분명한 뜻은 / 일마다 물건마다 앓다 투어 두루 밝히고 있네” (나옹 혜근 스님의 ‘붉은 단풍앓다 조사의 뜻은 드러나고’)

책에는 진각, 원각, 태고, 함허, 성철 등 이름만으로도 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선시 126편의 보석 같은 선시가 실려 있다. 문장 끝에 바로 뜻을 밝히지 않는 선시는 그 나타나지 않는 ‘의미’들을 찾아 나서게 해주는 데 맛이 있는 듯하다.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일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게 하는 책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벗어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명정 스님 ‘내생까지 이어갈 공부’

2014 극락호국선원 시리즈-전 5권

극락호국선원 발행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삼소굴일지(명정 스님 역주) 2만4천원 | 경봉스님말씀(명정 스님 역주) 2만원 | 차이야기 선이야기(명정 스님 역주) 1만8천원 | 신심명(명정 스님 역주) 1만8천원 | 경허집(명정 스님 역주) 2만원



한국 근대 선지식인 경봉 스님(1892~1982)을 시봉했던 명정 스님(통도사 극락호국선원 선원장)은 틈틈이 스승 경봉 스님의 수목집과 일지, 편지글 등을 엮어왔고, 〈경허집〉, 〈한암집〉, 〈신심명〉 등의 번역서를 냈으며, 선가의 이야기를 풀어 낸 〈차이야기 선이야기〉, 〈법해〉 등을 통해 선방이야기를 다양하고 밀도 있게 그려낸 바 있다. 또한 2012년 경봉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전 수행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집〈향성〉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5권의 책은 당시 함께 엮고자 했던 것을 전집으로 묶은 것이다.

“오전 2시 30분 조사선의를 깨닫다 /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 허허 이제 만나의 흑 없으니 / 우담발화 꽃빛은 온 누리에 흐르누나”

경봉 스님의 〈삼소굴 일지〉는 1927년 12월 7일부터 시작하여 1976년 4월 2일 까지, 경봉 스님의 50년 동안의 기록이다. 선사 나이 36세에서 85세 때까지의 흔적으로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가장 원숙한 시기의 기록들이다. 머리말에서 명정 스님은 “출세간에 몸을 담은 수도인이 자기 내면의 세계와 밖으로 관계된 일들을 오랜 세월을 걸쳐 낱알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지를 써본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여간 부지런하지 않고는 꾸준히 지속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반세기에 걸쳐 일지를 기록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선사의 근심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고 스님을 회상했다. 또한 이 일지는 세상에서



스승 경봉 스님(사진 오른쪽)을 모시던 시절의 명정 스님(사진 왼쪽).

스승 경봉 스님의 〈삼소굴일지〉
〈경봉 스님 말씀〉 외 3권

흔히 쓰는 일기와는 그 바탕이 다른 것으로 사건의 기록도 없지 않지만 주고받은 법담과 감회들이 격외의 시로써 장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192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시절의 눈부른 남자와 선지식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일지를 통해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료이다.

“비가 와도 물은 고여 있지 않고 구름이 일어도 자취를 찾을 수가 없고 바람이 불고 새가 노래하더라도 그 자취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상이 모두 이러한데 무엇을 두려고 할 것이 있겠는가. 두려고 하여도 돌 것이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곳이 없다. 만물이 다 이러한데 두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요 영원히 전하려 하는 것도 망상이다. 산은 높고 물은 흘러가고 새는 지저귀고... 이러한 속에서 다만 가가소(呵呵) 가가소(呵呵)로다.”

〈경봉 스님 말씀〉은 경봉 스님의 설법을 수록한 〈법해〉에 이은 두 번째 법문집이다. “아반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 하신 말씀이 가신 다정다감하셨던 선사의 공부를 볼 수 있다. 1975년부터 선사의 어록이 법보시판으로 간행되었는데 유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선사의 선지를 널리 퍼기 위해 다시 간행한 것이다.

〈경허집〉은 경허 스님의 저술로 선문 범어의 깊은 뜻과 묘한 구절들을 볼 수 있다. 만해 스님은 머리말에서 “술집과 시정에서 읊조렸듯이 저속하지 않으며 비바람 눈보

라 치는 텅 빈 산에서 붓을 잡아도 세간을 벗어난 것만도 아니어서, 종횡으로 험차고 생소하거나 숙달되었거나 결핍 없이 문장마다 선이요, 구절마다 법이어서 그 법칙이 어떠한 것을 논할 것도 없이 실로 일대의 기이한 글이요 시구다.”고 했다.

“우리는 곧잘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 명정 스님의 글 속에는 고요한 밤, 홀로 앉아 마시는 차인의 차맛이 있고, 구름 따라 물 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남자의 외로움과 결핍이 없는 선의 경지가 있다.”

명정 스님이 쓴 〈차이야기 선이야기〉는 진정한 차 맛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의 깊은 맛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글이다. 명정 스님의 차와 선이야기는 글쟁이들의 글과는 다르다. 알팍한 수필류와도 전혀 다르다. 스님의 글 속에는 서툰지만 인생을 갈구하는 진지한 눈이 있고, 외길 가는 구도자의 아픔이 있고, 홀로 차를 마시는 차인의 텅 빈 마음이 있다. 그리고 팽펄 끓는 옹공로 속에서 한 번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선승의 예지가 있다.

〈신심명〉은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스님의 글로, 선과 중도 사상의 요체를 사언절구의 계승으로 간명하게 밝힌 선종의 보전이라 할 수 있다. 명정 스님이 읽어 주는 〈신심명〉이다.

명정 스님은 “이번 책 5권은 스스로 부족한 수행의 내면이기도 하며 내생까지 이어갈 ‘공부’이기도 하다.”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 주는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
행불선원 월호 스님의 화제의 신간

삶은 환타지다

월호 스님의 명쾌한 계승 이야기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월호 스님의 『삶은 환타지다』 신나는 토~크~show !!!

월호 스님의 명쾌한 계승 이야기 - 강연, 즉문즉설, 시인회

4월 9일(수) 오후 5시~
교보문고 / 강남점 내 "티움"

4월 11일(금) 오후 7시~
교보문고 / 광희문점 내 "배움"

4월 20일(일) 오후 3시~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월호 스님 지음 | 신국판 328쪽 | 13,500원

월호 스님의 화제의 신간!! 명쾌한 계승 이야기 『삶은 환타지다』, 4월 9일, 4월 11일, 4월 20일 스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됩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워브빌딩은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s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